

## 〈초공본풀이〉의 공간 구조

신연우\*

〈차례〉

1. 머리말
2. 공간 배치 정리
3. 공간의 성격 분석
4. 공간의 관계와 의미
5. 아기씨 여행의 상징적 의미
6. 맺는말

### 국문요약

초공본풀이는 여행이 주된 화소이다. 그러나 그 여정은 객관적인 거리를 보여주지 않는다. 여행의 거리가 정서적 인식에 기인하며 공간에 대한 인식이 가치의 변전을 유발한다. 초공본풀이의 공간 구조 분석을 통해서 신화적 공간 배치의 양상과 그 의미를 생각해보았다.

주접선성과 임진국대감 부부는 집과 황금산을 왕복하는데, 이것은 아주 가까운 거리로 처리되어 있다. 반면에 아기씨는 같은 곳을 찾아가는데 그와 반대로 아주 먼 길로 간다. 이 거리는 당연히 실제의 거리가 아니고 가치에 대한 정서적 인식의 거리이다. 주접선성은 성스러운 인물이기에 두 곳의 거리가 문제되지 않는다. 임진국 대감은 일상인이기만 하기에 황금산이 그리 높지 않다. 황금산도 아기 치성을 하는 정도의 생활공간이기 때문이다. 또는 임진국 대감에게는 성스러움이 그리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성스러움에 대한 인식

\* 서울산업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없이도 일상인의 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다. 그러나 가슴에 초월적 지향을 둔 사람은 일상적으로 가까운 길을 여러 과정을 거쳐 어렵게 찾는 경우가 있다.

자지멩왕아기씨의 황금산으로의 길고 힘든 여행은 일차적으로는 아가씨의 혼인길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2차적으로는 그 길은 여성에게 기존의 삶을 죽여 다른 공간을 맞이하는 죽음과도 같은 과정으로, 실제적으로 죽은 자가 저승으로 여행을 하는 이미지가 부여되었다고 보인다. 이는 여성의 입문의례가 혼인과 접치는 경우를 보여준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운 것이어서 이는 여성 수난의 한 모형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된다.

삼멩두는 높은 곳에서 얻는 능력으로 중심땅에서 이승을 관장한다. 황금산은 사라진 신이 거주하는 곳이다. 인간과는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않기에 초월적인 공간이면서도 중심이 되지 않는다. 인간에게 필요한 재생과 명과 복이 관여되는 곳은 초월공간이 아니라 중심 공간이다. 그것은 聖과 俗, 神과 人에 모두 관련을 맺으면서 초월 공간으로 인도하는 중간 매개 공간이다.

초공본풀이는 여성의 수난과 혼인, 죽음과 재생, 인간과 신의 관계에 대해 제주도민이 생각하는 진실을 드러낸다. 여성의 수난은 객관화된 지표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객관적 지표와 개인이 느끼는 삶의 무게는 거의 관계가 없다. 혼인의 길을 가는 여성이 겪는 수난과 죽음과 재생의 과정은 영혼 깊은 곳에서의 여행이기에 객관 세계의 거리는 큰 의미가 없다. 자지멩왕 아기씨가 겪는 고난은 제주도 여성의 삶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을 것이다.

주제어 : 초공본풀이, 공간, 일상, 초월, 중심, 여성수난, 혼인, 죽음

## 1. 머리말

초공본풀이는 바리공주 본풀이와 마찬가지로 여행이 주된 화소이다. 바리공주는 한 사람의 주체가 홀로 저승까지를 왕복하는 본격적인 여행이라면 초공본풀이의 여행은 여러 주체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 공간을

옮겨 다니는 생활의 여행 곧 移住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여정은 객관적인 거리를 보여주지 않는다.

같은 서사문학이면서도 소설과는 달리 신화나 민담에 보이는 거리는 객관적으로 계산하여 검증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 이에 대해 막스 뤼티(1985년 4판, 25면)는 정신적 거리라고 말한 적이 있고, 프랑크포트(1996. 32면)는 신화적 사고에서는, 공간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공간이라는 개념이 추상되는 것이 아니라 연상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 체계는 객관적인 측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가치들에 대한 정서적인 인식에 따라 결정된다고 지적하였다.

초공본풀이에도 여행의 거리가 정서적 인식에 기인하며 공간에 대한 인식이 가치의 변전을 유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양상에 대한 검토는 아직 연구되지 않았다. 초공본풀이의 공간 구조 분석을 통해서 신화적 공간 배치의 양상과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자기맹왕 아기씨와 삼맹두의 공간 이동 양상을 통해 초공본풀이의 의미에 대해 보다 명료한 이해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선행연구 중에서 본고에 가장 가까운 논지를 보인 것은 신월균(1988, 364-368면)이다. 신월균은 〈초공본풀이〉의 구조를 세속과 신성의 대립구도로 파악하였다. 아기씨의 경우는 세속과 화합이 조화될 수 없었으나 삼맹두가 세속과 신성의 사이를 매개하는 center의 역할을 하여 신화적 성취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최시한은 〈초공본풀이〉의 구조 분석과 해설을 통해 아기씨가 겪는 과정은 순환적 수동적인데 비해 삼형제는 성장적 상승적 능동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1986년, 212면) 이들은 〈초공본풀이〉의 중심적 가치는 삼맹두의 신격과 권능 쪽에 있다고 보고 있다. 심방의 역할과 견주어 보면 타당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들은 서사적 해명 속에 공간적 의미를 일부 삽입한 것이다. 본고는 공간 구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그 공간의 정신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둔다.<sup>1)</sup> 초공본풀이의 서사 주체를 삼맹두로 보는 것도 타당하지만 이 글에서는 신화 자체의 맥락보다는 서사구조에 중점을 두어 자지맹왕 아기씨를 비중 있게 다룬다.

주 자료는 『제주도 무속신화 - 열두 본풀이』에 들어 있는 이중춘 구연 <초공본풀이>(문무병, 1998)이며 필요에 따라 다른 구연본을 참조하였다.

## 2. 공간 배치 정리

우선 자료의 순서에 따라 공간 배치를 정리하자.

- ① 임진국대감, 김진국부인의 집과 마을.(바둑 장기 두고 내려오다 거지들이 아기보고 웃는 모습 보고 집으로 돌아와 은단팽을 굴리다 운다)
- ② 황금산 주점선성이 임진국 대감 집으로 내려온다.(생불얻기를 소망한다.)
- ③ 임진국 대감 부부가 곡식과 배를 싣고 황금산으로 오른다.
- ④ 수륙 공양 드리고 집으로 돌아온다. 자지맹왕 아기씨 출생.

---

1) 이밖에 <초공본풀이>를 대상으로 한 좋은 연구들이 다음과 같이 여럿 있지만 본고와 직접 연관되지는 않기에 언급하지 않는다.

김현선, 『제주도 초공본풀이의 영웅신화적 면모』, 『세계의 영웅신화』, 동방미디어, 2002.

김우주, 『초공본풀이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2004.

윤교임, 『여성영웅신화 연구: 초공본풀이 삼공본풀이 세경본풀이에 대한 문화기학적 해석』, 서강대학교 석사논문, 1995.

설성경, 『초공본풀이의 서사구조 연구』, 『제주도언어민속논총』, 제주문화, 1992.

- ⑤ 임진국대감과 김진국부인이 천하공사 지하공사 살려 떠난다.
- ⑥ 황금산 주접선성이 아기씨를 보러 내려왔다가 떠난다.
- ⑦ 임진국대감 부부가 집으로 내려온다.
- ⑧ 임신한 아기씨가 쫓겨나 황금산으로 주접선성을 찾아 떠난다.
- ⑨ 여러 다리, 산, 바다를 건너간다.
- ⑩ 황금산에 도착해 차나록 세동이를 깬다.
- ⑪ 불도 땅으로 내려가 살며 삼맹두를 낳는다.
- ⑫ 삼맹두가 삼천서당에서 글공부를 한다.
- ⑬ 서울로 과거 보러 떠난다.
- ⑭ 우여곡절 끝에 과거 합격하여 귀향한다.
- ⑮ 서강배포 땅에 와 어머니 죽은 소식을 듣는다.
- ⑯ 외할아버지 임진국 대감 집을 찾아가다.
- ⑰ 아버지를 만나러 황금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삼도전거리에서 너사매 3형제를 만난다.
- ⑱ 황금산에서 자식 인정 시험을 받고
- ⑲ 굴미굴산 들어가 악기를, 내려와 백모래앗에서 천문, 상잔을 마련한다.
- ⑳ 악기를 올려 어머니를 살려내, 어머니 손목을 잡고 서강배포 땅으로 내려온다.
- ㉑ 굴미굴산 올라가 나무 베어 당집을 짓는다.
- ㉒ 어머니는 삼하늘에, 삼맹두는 저승 삼시당에 좌정한다.
- ㉓ 무당이 된 유정승 따님애기가 서강배포 땅에서 굿을 하여 자복장자집 아기를 살려낸다.

이상과 같이 정리된 공간의 순차적 서사단락에서 중요한 공간은 다음과 같다.

㉔ 임진국 대감 부부의 집과 마을

자식 없는 부부가 자식을 소망한다.

임신한 아기씨가 쫓겨난다.

삼맹두가 아버지를 찾기 위해 들렀다 가는 곳이다.

㉕ 황금산

주접선성이 사는 거처이다.

임진국 대감 부부가 생불 치성하러 올라가는 곳이다.

주접선성이 아기씨를 볼 수 있다고 일반 선비들과 내기한다.

임신으로 쫓겨난 아기씨가 주접선성을 찾아온다.

삼맹두가 찾아 와 자식 인정 시험을 받는다.

굴미굴산으로 올라가 무악기를 마련한다.

㉖ 서강베포 땅(불도땅)<sup>2)</sup>

주접선성을 찾아온 아기씨에게 주접선성이 마련해준 거처이다.

아기씨가 이곳에서 삼맹두를 낳는다.

삼맹두가 삼천서당에 다니며 글공부한다.

어머니인 노가단풍 자지멩왕 아기씨가 죽는다.

아버지에게 갔다 온 삼맹두가 어머니를 살려 삼하늘에 좌정하게(당집에 거주하게) 한다.

---

2) 서강베포 땅과 불도땅은 같은 곳인가 문봉순이 질의했다. 삼형제를 낳고 기른 곳은 불도땅이다. 다른 곳으로 옮겨 살았다는 말이 없이 그곳에서 자라서 과거를 보러 떠났다가 돌아오니 아기씨는 죽어 있었다. 그러니 죽은 곳은 살던 곳과 같은 곳이다. 삼형제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아버지를 찾아가서 굿법을 마련하고 굿으로 어머니를 살려낸다. 이 때는 서강베포땅이라고 되어 있다. 어머니를 살려냈다는 것은 신으로 살려냈다는 것이니 실제의 지명과 큰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어머니를 살려낸 곳은 특정지명이 아니라 삼천천제석궁이라는 신전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서강베포땅은 후에 유정승 따님애기가 무당이 되는 곳이기도 하니 실제의 지명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 땅은 서강베포땅이며, 질의자가 지적한대로 아기를 낳고 기르는 곳을 불도땅이라고 하기에, 아기씨가 아기를 낳던 시절의 그 공간을 '불도땅'이라고 불렀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㉔ 서울

삼땡두가 과거에 합격한다.

㉕ 임진국 대감 김진국 부인이 천하공사 지하공사 살려 간 곳

### 3. 공간의 성격 분석

초공본풀이는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㉔ 임진국 대감의 집과 마을은 일상적인 생활공간이다. 임진국 대감 부부는 마흔이 넘도록 자식이 없어 걱정하다가 부처에게 치성을 드리게 된다는 것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설정이다. 먹을 것이 없는 거지도 아기를 놓고 웃음을 웃는 것을 부러워하는 부유한 임진국 대감이 집에 와서 은단병에다 웃을 입혀 굴려보다가 운다는 삽화는 결핍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문학적 장치이다.

정상적 혼인을 하지 않고 임신한 아기씨를 부모가 죽이려 하다가 내쫓는다는 설정도 낯익은 삽화이다. 물론 주몽신화의 유화처럼 신화적 삽화로도 사용되지만 일상생활 공간에서 아버지 없는 자식을 가진 여성에 대한 징치는 남성 중심 사회 어느 곳에서나 동서고금으로 보편성을 띤다.

㉕가 이렇게 일상적이기만 한 공간은 아니라는 생각은 후에 삼땡두가 아버지가 있는 황금산을 찾아가려 할 때 와서 길을 묻는 곳이기 때문이다. 물론 앞부분에서도 임진국 대감 부부가 자식 치성을 하기 위해 황금산을 다녀온 일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삼땡두가 신격을 얻는 전단계로 아버지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설정된 것은 이 공간이 순수하게 속된 공간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상의 공간은 속된 공간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다음에 보겠지만 순수하게 속된 공간은 서울로 상정된다.

㉞는 임진국 대감 부부가 황금산으로 바로 올라가는 곳이기도 하고, 천하공사 지하공사 벼슬 살러 가는 곳이기도 하다. 천하공사 지하공사 벼슬 살러 가는 임진국 대감 부부는 순전히 일상적인 인간과 다름없이 기술되고 있다. 이 부부는 지식 없는 슬픔을 해소하려는 점에서는 평범한 사람이고 천하공사 벼슬을 살고 오는 점에서는 신격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런 이중성을 공간 ㉞가 함께 갖는다.

㉟ 황금산은 일상적 공간과 대조되는 초월적 장소이다. 부처의 영험으로 아기씨를 낳게 하고,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주접선성의 거처이다. 임신한 아기씨가 주접선성을 찾아갔고, 후에 아버지를 찾으러 삼멩두도 이 산으로 온다. 부자간을 확인하고 죽은 어머니를 되찾을 방도를 일러 주고 삼멩두를 무신으로 좌정하게 한다. 굴미굴산으로 들어가 무악기를 마련하게 한다.

노가단풍 아기씨를 점지하고, 임신시켜 삼멩두를 갖게 하고, 불도땅으로 들어가 삼멩두를 낳게 하고, 죽은 아기씨를 살릴 방도를 마련해주는 등 황금산의 주접선성이 하는 일은 이 신화 전체의 틀을 잡아, 그 곳이 사람 사는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초월적이고 신비로운 산임을 여러 모로 나타낸다.

㊱ 불도땅은 황금산으로 주접선성을 찾아간 아기씨가 중인 주접선성과 함께 지낼 수 없어서 혼자 지내며 삼멩두를 낳은 곳이다. 아기씨는 이곳에서 삼멩두를 낳고 삼천선비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다가 환생하여 이승 삼하늘을 관장하는 신격으로 좌정한다. 삼멩두는 어렵게 공부를 하고 서울로 과거하러 갔다 와서 아버지를 찾은 후에 새로운 능력으로 어머니를 재생시킨다.

㊲ 서울은 삼멩두가 과거 보러 간 곳이다. 홀어머니 밑에서 가난 서난



하게 어렵게 공부한 삼맹두는 과거 합격으로 모든 보상을 얻기를 원한다. 과거에 합격하여 어사화를 쫓고 가마를 타고 삼만관속 육방하인을 거느리고 도임상을 받아 팔자를 고치고자 한다. 과거는 세속적인 견지에서 성공의 상징이다.

서울은 세속적인 성공을 가져다주는 곳이지만 삼맹두에게 좌절의 공간이기도 하다. 삼천선비의 모략으로 과거가 취소된다. 과거 취소는 삼천선비 때문이지만 그 근원의 이유는 출신 성분이다. 중의 자식이기 때문에 세속적 성공은 좌절된다.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생긴다. 삼맹두는 범상치 않게 출생하여 탁월한 실력으로 과거에 급제하면서도 늘 삼천선비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 배나무에 올라서 겪은 곤경은 이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아무 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에서도 글로는 장원이고 활로 연주문을 바로 맞히는 실력을 보여주지만 결국 과거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삼천선비의 사주로 어머니는 죽고 이들은 통곡한다. 서울은 이들의 고통을 종식시킬 수 있는 곳이지만 이들의 시도는 출신 성분 때문에 좌절된다. 이들의 운명은 세속적인 성공으로 맺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들이 신적인 힘을 보여주는 것은 아버지를 찾아 황금산에 오른 이후이다. 황금산에 오르자 주점선성은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머리 삭발하고 가사 송낙 굴장삼을 입고 배석자리 깔아 절 삼배를 하여 '초전생을 그린 후야 자식으로 인정 받고 어머니를 되살릴 수 있게 된다. 초전생을 그린 것은 이전까지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다. 과거합격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 무당이 되는 것은 세속적인 성공을 포기하는 것, 세속적인 자아를 버리는 것임을 보여준다. 그래야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된다. 자아를 버린 자리에 신이 들어오고 신을 통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

는 능력을 얻게 된다.

황금산에 오르는 것은 의식적 차원에서는 죽은 어머니를 되살리기 위해서이지만 무의식의 차원에서는 과거의 자기를 죽이는 과정이다. 황금산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하자 하느님이 이삭을 살려주는 구약성서의 삽화를 생각해보자. 아브라함은 아들을 살리려는 인간적 욕구를 신을 위해 포기하였기에 신은 이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다. 자신을 죽여야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고 그것은 과거보다 더 값있는 삶이라는 생각이라면 이는 유사한 신화적 논리라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황금산은 서울과 정 반대되는 의미를 갖는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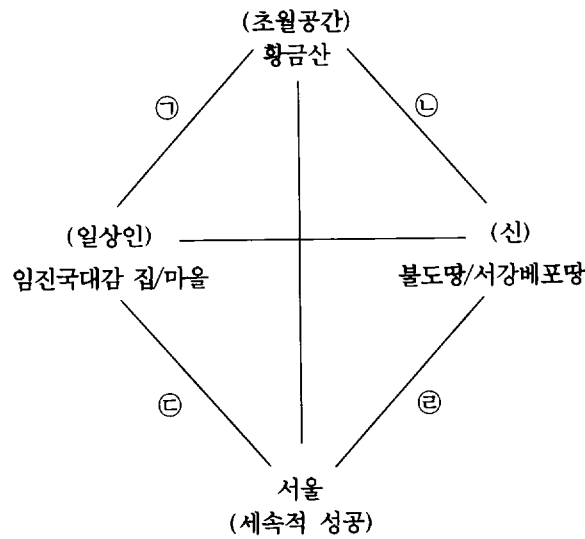
#### 4. 공간의 관계와 의미

주체들의 이동과 이 공간들의 서로간의 관계를 묶어 생각해보자. 서울은 과거를 보는 곳이고 과거 함격은 현실적 의미에서 성공을 보장한다. 삼맹두는 과거를 소망했지만 좌절하고 아버지를 찾아 황금산에 와서 새로운 삶을 얻는다. 이 새로운 삶은 세속적인 의미의 성공과는 거리가 멀다. 죽은 어머니를 살리고 인간 삶과 죽음에 관여하는 신격으로 되살아나는 곳이다. 황금산은 신비로운 초월적 공간이다. 황금산에 사는 주접선성은 초월적인 능력을 드러내는 신비한 존재이다. 서울은 삼천선비가 삶의 목표로 두는 곳이다. 삼맹두도 삼천선비와 마찬가지로 목표를 가졌지만 출신 성분이 달라서 이를 수 없다. 출신이 양반이라야 하고 공부만 잘하면 얻을 수 있는 목표여서 초월적이거나 신비하지 않다.

임정국 대감의 집과 마을은 일상적인 공간이다. 아기가 없어 고통을

받다가 치성을 드려 딸을 낳았다는 것은 여느 마을에서 늘 있는 일이다. 이렇게 태어난 딸아기는 불도땅에서 죽었다가 되살아나 신으로 좌정한다. 서강베포땅은 삼맹두가 태어나 공부를 하고 서울 다녀오는 과정을 거쳐 황금산에서 능력을 얻고 어머니를 살리고 자신들도 신이 되는 곳이다. 이 공간에서 인물들은 신이 된다. 유정승 따님애기도 이 곳에서 무당이 되고 죽은 아기를 되살려낸다. 이 공간은 신의 공간이고 임진국 대감의 집과 마을은 일상인의 공간이다.

이 두 짝의 공간은 다음 그림으로 보이면 명료하다.



아기씨가 간 여정은 ㉑과 ㉒이다. 황금산에 가서 주절선성을 만나고 불도땅에 와서 출산하고 양육하고 죽고 재생하여 신이 된다. 삼맹두의 여정은 ㉓㉔㉑㉒ 모두이다. 불도땅에서 출생하여 ㉓ 서울로 가서 과거를 본다. 다시 불도땅으로 왔다가 어머니 죽은 걸 알고 임진국 대감 집

으로 찾아 간다. 외할아버지 말을 듣고 ㉠ 황금산으로 아버지를 찾아 간다. 다시 ㉡ 서강배포 땅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살린다.

아기씨는 죽음을 겪고 부활하는 반면 삼맹두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 아기씨는 부모가 인간이기에 신이 되기 위해 죽음의 과정을 거친다. 삼맹두는 아버지가 황금산의 주점선성으로 이미 신적인 인물이기에 죽음을 겪지 않고도 신이 된다. 반면에 노가단풍 아기씨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태어나 성스러운 공간을 거쳐서 신의 공간으로 들어왔다. 아기씨는 속의 공간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이 되었다. 삼맹두는 신의 공간에서 태어나 속의 세계를 지향했다가 일상의 공간을 거쳐 성의 공간에서 새로운 능력을 얻고 다시 신의 공간으로 되돌아 왔다.

이 둘은 보완적이다. 죽음을 경험한 신과 세속을 경험한 신은 인간이 바라는 두 소망 세속적 성공과 죽음의 회피라는 두 문제를 집약한다. 세속적 성공은 복이라는 말로, 죽음의 회피는 명이라는 말로 나타낼 수 있다.

복을 비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세속적 성공을 얻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세속적 성공 너머에 있는 가치를 획득하는 것이다. 삼맹두는 세속적 성공을 얻을 능력이 있었으나 삼천선비의 모략으로 좌절하고 정신적 스승인 무신이 되었다. 삼맹두는 세속적 성공을 얻게 해 줄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너머의 정신적 행복까지 관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살아서의 복을 넘어서는 일이다. 삼맹두는 명을 관장하는 신격으로 좌정한다. 속을 거쳐 성이 되는 삼맹두는 인간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신격이 된다. 아기씨가 '이승 삼하늘에 지국'하고 삼맹두가 저승 삼시왕에 들어서는 것은 죽음이 인간 생애에 더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박봉춘 본에서 "네 어명은 어궁도복 차지로 사라서 인간의 복을 주고 너의 삼형제는 목숨 차지로 사라서 인간의 명을 주

라”(赤松智城, 1991, 257면) 한 것은 인간에게 명이 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여성이고 어머니인 아기씨에게 저승, 심판, 형벌이라는 남성적 이미지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논리적으로는 죽음을 경험한 아가씨가 저승을 맡고 속세의 최고 가치를 경험한 삼맹두가 이승의 복을 관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이 서사시는 그 역할을 서로 바꾸었다. 그것은 저승에는 더 강한 남성적 이미지가 어울리기 때문일 것이고 또한 뒤이어 서술되는 양반에의 복수를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아기씨가 복수를 하는 것보다는 남자인 삼맹두가 복수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황금산은 세 공간 모두에 영향을 끼치는 곳이다. 황금산의 주접선성은 임진국대감의 집으로 찾아와 아기씨가 탄생하게 매개한다. 불도 땅으로 아기씨를 보내 삼맹두를 낳게 하고 삼맹두가 죽은 아기씨를 살리게 한다. 서울 과거에서 결과적으로 실패하는 것은 황금산의 중을 아버지로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버지로 인해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

여기서 신이 된 삼맹두, 아기씨와 황금산의 신인 주접선성을 비교하게 된다. 아기씨와 삼맹두는 인간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승과 저승은 인간의 직접적인 관심 영역이다. 살아서 복을 받고 죽음에 명을 좋게 받는 것이 인간이 늘 소망하는 것이다. 그 양상이 유정승네 따남애기 삽화의 구실이다. 삼맹두가 저승 삼시왕으로 좌정하는 것은 양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이니, 유정승네 따남애기가 무당이 되고 자복장자 집의 죽게 된 아기를 살려주는 것은 삼맹두가 직접 작용한 결과이다. 아기씨와 삼맹두는 인간과 직접 관계하는 신이다. 황금산의 주접선성은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기보다 신들과 관계를 맺는 신이다. 신의 신일 수 있다. 신을 낳는 신을 잉태게 하는 신이기 때문이다. 그래

서 인간과는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인간은 삼맹두와 아기씨에게 기도를 하지 황금산 주접선성에게 기도하지 않는다. 이는 신화학에서 말하는 사라진 신의 개념을 떠올리게 한다. 주접선성이 창조신은 아니기에 사라진 신 또는 한가한 신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도 하지만, 삼맹두를 신으로 좌정하게 하고 난 후 주접선성이 인간과 직접 관계를 맺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간취할 수는 있을 것이다. 즉 주접선성과 삼맹두와 우리 인간은 “신의 신 - 신들 - 인간”의 구성을 갖는다. 여기에 유정승네 따님애기가 편입되면 “신의 신 - 신들 - 무당 - 인간”의 관계가 된다. 인간은 이제 신들에게도 직접 소통하지 않고 무당을 통해서 소통하게 된다. 위의 공간 구도와 인물들의 여정은 이러한 점을 해명하고 있다.

위의 그림을 보면 일상인의 공간은 초월적 공간과도 관계가 있고 세속의 공간과도 관계가 있다. 성스러운 일상도 있고 세속적인 일상도 있다. 반대로 신의 공간도 성스러울 수도 있고 세속적일 수도 있다. 초월적 공간은 신뿐 아니라 일상인간에도 관계를 맺는다. 속의 세계도 일상인의 세속성과 신의 세속성 두 국면을 갖는다.

그래서 일상의 인간이나 신이나 초월적일 수도 있고 세속적일 수도 있다. 속이라고 인간의 범주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세계는 초월적일 수도 있고 세속적이기도 하다. 여기서 어떻게 복과 명을 얻을 것인가는 주체의 선택과 정성이다. 초공본풀이는 그 정성을 거리에 대한 인식으로 반영하고 있다.

聖의 공간인 황금산을 놓고 각 장소의 거리감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주체에 따라 거리감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가장 먼저 공간을 이동하는 것은 황금산의 주접선성이다. 주접선성은 절 수리를 위한 동냥(권제삼문)을 받으러 주년국 땅 임진국 대감 집으로 내

려온다.

흐를 낚은 동개남은 은중절, 서개남은 상서절  
 황금산 주점선성이 당도 파락되고 절도 파락돼난  
 권제삼문 받아당 현당 현 절 수리호저  
 하늘그린 굴송낙에 지애그린 굴장삼에  
 백팔염질 목에 걸고 다한줄은 손에 걸어  
 은주랑에 철죽델 지퍼네 주년국땅 소곡소곡 내려산다  
 동으로 들엉 서으로도 나고 서으로 들엉 동으로도 나고  
 권제삼문 받으레 텅기당 흐를낚은 천아임진국 대감님 집더레 들어사명  
 나사명(문무병, 116면)

황금산에서 임정국 대감집으로 오는 길은 세 줄로 처리되어 있다. 그  
 처 간단히 '주년국땅 소곡소곡 내려산다/ 동으로 들어 서로나고 서로 들  
 어 동으로 나고/ 다니다가 하루는 대감님 집에 들어선다.'고 되어 있다.  
 일상적인 거리일 뿐이다. 임진국 대감 부부도 곡식과 배를 준비해 말  
 에 싣고 황금산을 올라가는데 특별히 가는 길에 어려움도 없고 먼 길로  
 설정되어 있지도 않다.

가삿베도 구만장 송낙베도 구만장 다릿베도 구만장을 내올리고  
 말 바루에 주워실런 황금산을 올라산다.  
 황금산 주점선성 신디레 올라사 가난  
 늑눈이 반동개가 양발 들러 드리쿵쿵 내쿵쿵 내올린다(118면)

'올라간다'는 말 다음 줄에는 '올라가니' 로 되어 있어 바로 올라갔을  
 뿐이다. 김진국 대감 집과 황금산은 동네 앞산과 마을처럼 기술되어 있  
 다. 대감님 부부가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도 두 줄로 "푼처 절간

하직하고 소곡소곡 내려산다./ 내려오단에 일락서산에 해는 지었더라”(119면)고 되어 있다. 해가 진 것은 빨리 잠들어 태몽을 꾸기 위해서 일 뿐이다.

아기씨가 열다섯이 되는 해 주점선성이 다시 아기씨의 집으로 내려온다. 그 길도 역시 쉽다.

황금산 주점선생님은

하늘 7룬 굴송낙 지에 7룬 굴장삼 백팔염줄 목에 걸고

다한 줄을 손에 걸고 소곡소곡 내려사 가난 (121면)

이 다음 행은 바로 아기씨 집이다.

그런데 임신으로 집을 쫓겨나게 된 아기씨가 황금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여정이 너무 길어 다 인용하기는 번잡하니 거쳐 가는 곳만 나타내보자. 처음에 집을 나서니 “나사난 동서막금흔 질이로다”(128면)라고 했다. 동서를 분간할 수 없었다는 말이다. 앞에서는 주체들이 자신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는데 아기씨는 집을 나왔으나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다. 주점선성을 찾아가야 하지만 어디로 어떻게 가야하는지 알 길이 없는 것이다. 이는 바리공주가 저승을 가야하지만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채 길을 나선 것과 흡사하다. 길을 나서서 처음 만난 것은 마른 역새에 불이 붙은 곳이다.(광광새에 불이 부땀더라, 128면). 왜 불이 붙었는가 하는 아기씨의 질문에 저 불은 자식을 놓아 보낸 부모 가슴에 붙은 불이라는 느진덕이 정하님의 대답이 따른다. 둘째 구렁에 진 물이 동산으로 거꾸로 흐르는 물이 있는 곳을 지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아버지 어머니 놓아두고 자식 먼저 가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음으로는 청일산을 넘



어 금봉채로 다리를 놓아 청수 바다, 흑수 바다를 건너간다. 웨진 땅을 넘어 백일산, 백수 바다 넘어 건지산을 넘어 수삼천리 낙수바다에 이르러 이 바다를 건너지 못하여 울다 잠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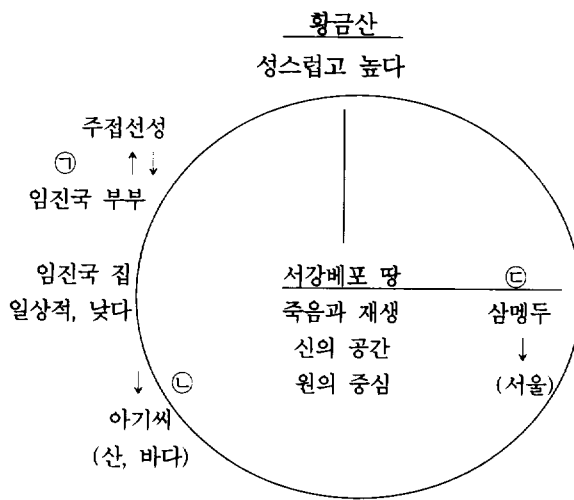
수삼천리 낙수와당 근당하니  
금봉채로 드리 놓나 이도 못넘어 가난  
비새궤 우는게 무정눈에 즙은 들었더라  
몽룡성에 꿈에 선몽시겨간다  
거북 사재가 오란에 곁는 말이  
상전남아 상전남아 나 등더래 돌아집서  
수삼천리 낙수와당 넘겨 안네쿠다  
번뜩 깨어나보난 거북이가 율폐 이섯구나  
어떤 일인고 거북이 우트레 올라타난  
수삼천리 낙수와당 넘어간다 (129-130면)

이렇게 신비한 힘의 도움을 받아 수삼천리 바다를 건너서 또 불도물을 넘어 가고 또 가서 열두 문에 ‘열두 폭 대홍단 훗단치메’(130면)로 인정 걸고 나서야 주접선성이 있는 황금산 법당에 도착하게 된다. 그러나 주접선성은 아기씨를 인정하지 않는다. ‘츠나록 식동이’를 손으로 까 오리는 시험을 낸다. 이것도 여정의 한 부분인 것이다. 여기서도 새들의 도움을 받아 시험을 통과하였으나 주접선성은 이곳에서 함께 살 수가 없다고 한다. 아기씨는 이곳을 목적으로 먼 여정을 돌아왔으나 이곳 역시 과정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아기씨는 다시 불도땅으로 내려산다. 아기씨가 지낼 곳은 불도땅 서강베포땅이다.

임진국대감 집에서 황금산 가는 길은 같은 길이면서 같은 길이 아니다. 가는 주체에 따라 다르다. 또한 아기씨에게 황금산은 도달해야 할

곳이었지만 최종 종착지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아기씨는 불도땅에서 삼맹두를 낳고 삼맹두는 이곳에서 가난 속에 어렵게 글공부를 하고 서울로 과거를 치르러 간다. 그러나 그 동안 아기씨는 삼천선비의 흉계로 목숨을 잃는다. 돌아온 삼맹두는 이 사실을 알고 다시 외할아버지 집을 거쳐 황금산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 어머니를 살릴 방도를 알아와서 다시 서강베포 땅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살리고 신으로 좌정한다. 이렇게 보면 서강베포 땅은 탄생, 죽음, 부활이 이루어지는 신의 공간이다. 이러한 관념을 다음 그림으로 나타내보자.



주접선성과 임진국대감 부부는 ㉠의 거리만을 왕복한다. 집과 황금산을 왕복하는데 아주 가까운 거리로 처리되어 있다. 전체 원의 1/4의 거리만을 경험할 뿐이다. 반면에 아기씨는 같은 곳을 찾아가는데 그와 반대로 아주 먼 길로 간다. ㉠과 반대 방향인 ㉡으로 해서 원을 뺀 돌아 황금산으로 간다. ㉠을 제외한 원의 3/4이나 되는 거리를 가는 것이다.

이 거리는 당연히 실제의 거리가 아니고 가치에 대한 정서적 인식의 거리이다. 주접선성은 성스러운 인물이기에 두 곳의 거리가 문제되지 않는다. 임진국 대감은 일상인이기만 하기에 황금산이 그리 높지 않다. 황금산도 아기 치성을 하는 정도의 생활공간이기 때문이다. 또는 임진국 대감에게는 성스러움이 그리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성스러움에 대한 인식 없이도 일상인의 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다.

아기씨는 아기의 아버지가 비일상적 인물이고 역시 비범한 아들을 낳을 것이기에 일상적 공간에 제한되지 않는 먼 길을 간다. 가슴에 초월적 지향을 둔 사람에게는 일상적으로 가까운 길을 여러 과정을 거쳐 어렵게 찾는 경우가 있다. 『傳燈錄』에 전하는 유명한 예를 들 수 있다. 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②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③ 산은 물이고 물은 산이다. ④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①과 ④는 똑같은 판단이지만 ②와 ③을 거쳐 이룬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아기씨가 걷는 길은 신을 수용하고 스스로가 신이 되기 위한 먼 길이다.

주접선성이 쉽게 가는 길을 아기씨가 이렇게 힘들게 멀리 가야 하는 것은 우리 서사문학의 전통화소인 여성 수난과 관계 깊은 것이다. 아기씨는 먼 길을 와서도 바로 쉬지 못한다. 아내임을 인정받기 위해 곡식난 알을 손톱으로 벗기는 시험을 겪어야 한다. 그리고도 다시 불도땅으로 혼자 내려가 가난하게 살며 아이를 낳고 길러야 한다. 결국 그곳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다. 불도땅 서강베포 땅은 인간으로 태어난 아기씨가 먼 여행을 거쳐 죽음까지 경험한 후에 신으로 좌정하는 공간이다. 그는 황금산에서 주접선성과 함께 있지 않는다. 황금산은 성스러운 높은 산이라면 불도땅은 생활과 죽음과 재생이 이루어지는 중심공간이다.

삼맹두는 불도땅에서 태어나 삼천선비로부터 고난을 겪고 서울에 갔

다가 임진국 대감집을 거쳐서 황금산을 오르고 다시 불도땅으로 되돌아 온다. 서강배포땅에서 출발하여 ㉔의 아래 방향으로 ㉕과 ㉖을 거쳐 황금산에 이른다. 이곳은 삶과 죽음이 있는 생활의 중심 공간이다. 중심에서 나와 여러 곳을 거쳐 다시 중심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높은 곳과 중심인 곳은 다르다는 인식은 흥미롭다. 서두에서 말한 바 설화문학에서 거리가 정서적 가치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라 한 지적이 부분에 적절하다. 왜 아기씨는 그렇게 먼 거리를 우회해야 하는가? 다시 이야기를 가치의 측면에서 간략히 정리하자.

(1) 이야기의 처음은 임정국 부부가 자식이 없어 고통스러워 하는 장면이다. 이는 결핍의 제시이다. (2) 이 결핍을 해소해주는 것은 황금산의 주점선성이다. 주점선성의 도움으로 아기씨가 탄생했다. (3) 주점선성의 도움은 최초의 결핍을 해소하는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아기씨의 고난을 불러오는 것이었다. 아기씨는 임신을 하고 부모에게 쫓겨나 황금산으로 고통스러운 여행을 하게 되었다. (4) 이렇게 볼 때 아기씨의 여행은 두 번째로 드러난 고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 여행은 왜 이렇게 길고 고통스러운가? 그것은 황금산 주점선성의 일방적인 도움을 받지 않는 것, 즉 그 고난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일방적으로 신에게 기대지 않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신과 달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기에 여정은 길고 힘은 부친다. 이 과정을 거쳤기에 신이 될 수 있었다. 신과 인간은 둘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삼맹두 또한 원 전체를 도는 긴 여행을 한다. 어려서의 가난, 아버지 없이 자라는 고난, 세속적인 성공에의 기대, 삼천선비의 모함, 어머니의 죽음,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아버지를 찾아가는 여정, 이 모든 것이 삼맹두의 인생 여행이다. 단지 서울을 거쳐 외진 땅을 지나 황금산으로

찾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생 역정을 삼매두가 감당해냈고 성공하여 어머니를 살려내고 신이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 모든 역정을 드러내기 위해 먼 여행길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바람직하다. 그 여행은 초월적인 공간과 힘, 세속적인 성공과 좌절, 일상적인 삶의 의미를 모두 포용 이해하는 새로운 신의 탄생이기 때문이다.

이제 삼매두는 황금산으로 찾아가 주접선성이 시키는대로 초감제, 초신맛이, 초체 이체 삼체 올리는 곳을 해서 아기씨를 살려낸 후, “어머님 양단 홀목 쥐여잡안 서강베포땅 내려산다.”(143면) 서강베포 땅에서 ‘초간주 이간주 하간주를 설연하고 삼천기덕 일만제기 맹두맹철’ 마련하여 당집을 만든다. 여기서 이승 삼하늘을 관장한다. 높은 곳에서 얻는 능력으로 중심땅에서 이승을 관장하는 것이다. 앞에서 황금산은 사라진 신이 거주하는 곳을 말했다. 인간과는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않기에 초월적인 공간이면서도 중심이 되지 않는다. 인간에게 필요한 재생과 명과 복이 관여되는 곳은 초월공간이 아니라 중심 공간이다. 그것은 聖과 俗, 神과 人에 모두 관련을 맺으면서 초월 공간으로 인도하는 중간 매개 공간이다. 그것이 당집의 역할이다.

삼매두는 주접선성을 찾아가 자식으로 인정을 받은 후, 울랑국 살장고 천문 상잔 맹두 등을 마련하여 초감제 초신맛이 초체 이체 삼체 등 곳을 하여 삼천천제석궁에 갇혀 있던 어머니를 살려낸다. 그 뒤 초간주 이간주 하간주를 설연하고 제기를 두어 굿당을 세우고 어머니를 좌정하게 한다. 굿당이란 무엇인가? 지상에 있지만 삼천천제석궁이라는 초월 공간을 내재하고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삼천천제석궁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다. 그곳은 인간의 힘이 닿지 않는 곳이다. 삼천천제석궁은 당을 통하여 지상의 인간과 연결된다. 그래서 굿당은 인간의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곳이기에 신성한 곳이고 동시에 두려운 곳이다.

당집의 대표적인 예는 단군신화에 보이는 神市이다. 신시는 세속적인 꿈을 인간으로 화하게 하고 하늘의 환응과 결합하게 하고 단군을 탄생하게 하는 중심 공간이다. 개성 송악산의 최영장군 당집이나 한양 남산의 국사당이 모두 그와 같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혹시 무당의 삼산돌기가 당을 중심으로 동서사방을 두루 순행한 뒤 돌아온다는 점에서 삼명두의 여행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것은 아닐까? 옛날 임금들이 동서남북을 순행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더 고구해야 할 것이다.

## 5. 아기씨 여행의 상징적 의미

프로프는 민담에서 주인공의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의 여행은 간략하게만 다루어지며 이야기는 정지 상태에서의 묘사가 주된 것인데 이는 제의로서 이미 존재하는 것을 묘사하기 때문이라는 흥미 있는 지적을 하였다.(프로프, 1990. 74면) 초공본풀이에서 자지멩왕아기씨의 긴 여행은 일반 민담과 달리 공간의 이동을 길고 상세하게 묘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행 이전과 이후는 집과 황금산이라는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고, 사건은 각각 집에서의 임신과 추방 그리고 황금산에서 주접선성과 만남과 출산으로 되어 있다. 아기씨의 여행은 그 두 공간 사이의 이행 과정을 강화, 상세화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집에서의 임신과 추방이라는 제의와 만남과 출산이라는 제의 사이를 연결하는 기능뿐인 것을 확대 강화한 것으로 또 하나의 제의라고 할 수 있게 되었다.(프랑크포르트, 1980. 159면) 이렇게 이행 과정 자체를 제의 차원으로까지 확대 강

화한 까닭은 무엇일까?

아기씨는 집을 떠나면서 입던 옷을 말 또는 소에 싣고 아버지는 금봉채를 내어준다. 아기씨가 만나는 산과 물을 금봉채로 다릴 놓아 건너간다. 금봉채는 흔히 금부채(金扇)라고 한다.(현용준, 1980. 159면) 그러나 금으로 된 부채라는 설명이 꼭 적합하지는 않아 보인다. 또 금봉채로 보아 봉황형의 비녀(鳳釵)로 보기도 한다.(장주근, 2001. 103면) 비녀라는 것이 산과 다리를 건너가는 도구를 신화적으로 형상화한 것이고 볼 수도 있지만 프로프를 따라가면 이는 하나의 변형물로 이해된다.

프로프는 민담의 주인공이 떠나기 전에 여러 가지 물건을 준비하는데 “그들 중에 주의를 요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막대기이다.”(프로프, 1990, 75면)라고 지적한다. 이 막대기는 “옛날에 죽은 자들에게 그들의 저세상에서의 여행길을 위해 준비해주던 물건들”(76면) 중 하나이다. “후에 그것들은 쇠로 만든 것이 되었으니, 쇠는 그 여정의 길을 상징하는 것이다.”(77면) 바리공주가 쇠주령 쇠막대를 들고 저승으로 떠나는 것이 바로 여기 해당될 것이다. 프로프는 죽은 자들의 나라로 여행을 떠나는 산 자를 무당으로 생각했다.(78면) 자지명왕아기씨도 무조신이니 이 여행은 결국 산 자의 땅에서 죽은 자의 땅으로 이행이라는 아기씨의 꾀로서의 능력을 보이는 것일 수 있다. 산 자의 땅인 아버지의 집과 저 먼 산 높은 곳인 죽은 자의 땅인 황금산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금봉채란 저승길을 헤쳐 나가기 위해 가져가는 막대기가 변형된 것이다.

그러나 이 여행이 저승으로의 여행이기만 하다면, 아기씨가 그곳으로 이행해 간 후에 삼뿔두를 출산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아기씨의 여행은 저승으로의 여행과는 다른 의미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것은 죽음과 관계가 있지만 실제적인 죽음은

아니고 죽음으로의 여행과 재생을 상징적으로 처리하는 하나의 입문의례의 표현일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서는 여성의 혼인으로 나타난다.

아기씨가 주점선성으로 인해 잉태를 한 후 집에서 쫓겨나서 황금산으로 이행하고 삼땡두를 출산하는 것은 아기씨의 혼인의 과정이고 그것은 죽음과 等價物인 길고도 심각한 이행상태라는 점은 다음과 같이 여정의 묘사에 드러난다. 이 여정은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는 안사인 구연본에 상세화되어 있다. 아기씨가 만나는 것은 1. 부모가 아기씨를 죽이려 했기에 칼싼다리, 2. 자식을 내어 놓는 부모 마음을 표현하는 애순다리, 3. 부모 자식 이별하는 등진 다리, 4. 그래도 금봉채를 내 주는 부모 마음의 옳은 다리, 5.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나가니 거슬러 오르는 거순다리 등이다. 모두 부모를 이별하는 자식의 모습이다. 이를 거쳐 아기씨가 만나는 것은 건지머리, 건지산이다. 여기서 자지멩왕아기씨는 “상전님 머리카 올령가게” 하여 “머리 올려 건지를”(현용준, 159면) 한다. 왜 머리를 올리는가? 그것은 이중춘이나 서순실 구연본에는 “총각 머리에 애기 뺨 것 보기 싫”기 때문이다. 혼인을 했고 아기를 가졌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머리를 올린 것이다. 고대중 구연본에는 아기씨를 내쫓으면서 “계집 즈식은 열다섯 시오세 출가 외인이 되어진다. 네 간 고장 나고가라”(장주근, 102면)고 한다. 혼인길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혼인길을 거쳐 아기씨는 삼땡두를 낳게 된다. 이는 다시 자지멩왕아기씨가 가져가는 금봉채가 옛이야기에 자주 나타나는 막대기의 변형일 수 있음을 보인다. 마술적 도구인 막대기는 그 식물적 기원이 망각되었지만, 원래 푸른 나무였던 것이고 “바로 그 점에서 마술적이며, 건드리는 모든 것에 다산과 번영과 생명력을 준다는 것이다.”(프로프, 259면). 여러 민담에 보이는, 죽은 자를 살리는 막대기,



자, 잎사귀 등의 역할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 힘으로 아기씨는 어려운 길을 건넌다.

이렇게 보면 자지멩왕아기씨의 황금산으로의 길고 힘든 여행은 일차적으로는 아기씨의 혼인길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2차적으로는 그 길은 여성에게 기존의 삶을 죽여 다른 공간을 맞이하는 죽음과도 같은 과정으로, 실제적으로 죽은 자가 저승으로 여행을 하는 이미지가 부여되었다고 보인다. 이는 여성의 입문의례가 혼인과 겹치는 경우를 보여준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운 것이어서 이는 여성 수난의 한 모형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된다.

## 6. 맺는말

구전 서사 문학은 객관적 사실 그대로를 재현하지 않는다. 객관적 사실을 굴절하여 객관의 美名 아래 감추어져 있는 진실을 드러낸다. 초공본풀이는 여성의 수난과 혼인, 죽음과 재생, 인간과 신의 관계에 대해 제주도민이 생각하는 진실을 드러낸다. 여성의 수난은 객관화된 지표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객관적 지표와 개인이 느끼는 삶의 무게는 거의 관계가 없다. 혼인의 길을 가는 여성이 겪는 수난과 죽음과 재생의 과정은 영혼 깊은 곳에서의 여행이기에 객관 세계의 거리는 큰 의미가 없다. 자지멩왕 아기씨가 겪는 고난은 제주도 여성의 삶에 짙은 공감대를 형성했을 것이다. 그러한 수난을 겪은 사람이 신이 되었기에 신과 인간의 거리는 가까워진다.

그러나 가깝기는 해도 신으로서의 권위는 초월적인 곳에서 온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 저 높은 곳인 황금산의 지시대로 해서 삼멩두가 얻은

능력이 아기씨를 신으로 만들었다. 삼땡두와 아기씨는 가까이 있으면서 인간 생활을 살피지만, 그 초월적 근거인 황금산은 한 걸음 물러서 있다. 높은 곳과 중심인 곳은 다르다. 그러나 또한 중심인 곳은 높은 곳에 의해 존재하고 높은 곳은 중심인 곳이 없으면 존재의 의미가 없다. 이 다르면서 같은 공간은 철학적 고찰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높은 곳과 중심인 곳과 일상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는 일상의 생활공간에서 산다. 모든 공간이 중심이지는 않고 더욱이 초월적이지도 않다. 그러나 생활공간에 중심과 초월의 관념을 붙여넣어야 일상의 생활을 초월하는 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초공본풀이는 자지땡왕 아기씨와 삼땡두의 삶의 역정을 통하여 그 관계에 대한 탐구를 의식저층에서 민중들이 스스로 감당하도록 자극하였다고 생각된다. 그 효과적인 전달 수단으로 사용된 방법이 이동 공간의 굴절로 생겨나는 차이들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건』, 1980. 1-969면.
-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1-290면.
-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1-383면.
- 김현선, 『제주도 초공본풀이의 영웅신화적 면모』, 『세계의 영웅신화』, 동방미디어, 2002. 1-382면.
- 김우주, 『초공본풀이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2004. 1-52면.
- 윤교입, 『여성영웅신화 연구: 초공본풀이 삼공본풀이 세경본풀이에 대한 문화기호적 해석』, 서강대학교 석사논문, 1995. 1-106면.
- 설성경, 『초공본풀이의 서사구조 연구』, 『제주도언어민속논총』, 제주문화, 1992. 1-625면.
- H. 프랑크포르트 외, 이성기 옮김, 『고대인간의 지적 모험』, 대원사, 1996. 1-317면.
- 막스 뢰티, 이상일 역, 『유럽의 民話』, 중앙신서23, 중앙일보사, 1985년 4판. 1-225면.
- V.Y. 프로프, 최애리 역, 『민담의 역사적 기원』, 문학과지성사, 1990. 1-462면.

Abstract

On the Spatial Organization of <Chogong-Bonpuri>

Shin, Yeon-Woo\*

One of the important motifs of <Chogong-Bonpuri> is traveling. The itinerary of the traveling, however, does not show the objective distance. The distance of the traveling is affected by the emotional recognition and the understanding of the space follows the emotional value. In this paper I explained the aspects and the meaning of the mythical space organiz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spatial structure of <Chogong-Bonpuri>.

Joojub-Sunsung and Mr. and Mrs. Imjingook go to Mt. Hwanggeum and return home easily. Mt. Hwanggeum does not seem a long distance. On the contrary Agassi goes there for a very long round. It does not reflect the objective distance, it is the distance of emotional value. For Joojub-Sunsung is a saint, the distance does not matter. To Mr. and Mrs. Imjingook Mt. Hwanggeum is not so high because it is just one of the ordinary place of everyday life. One can lead a life well without the recognition of the sacred. But those who have an orientation to the transcendence in his/her mind go and come a long and steep way round, which seems so easy to get.

The first notion of the long and steep journey of Agassi is to show

---

\*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the way of her marriage. But secondly the way is the process of death and rebirth which implies the journey to the land of the dead. In this case the process of initiation of a young woman is put on top of her marriage. The process which is full of pain, we can understand as a model of the "women's suffering" of the Korean traditional narratives.

**Key Words**

<Chogong-Bonpuri>, space, transcendence, "women's suffering", marriage, death and rebirth

교신 : 신연우 서울산업대학교

서울 양천구 목동 911 목동아파트 611-2001

(E-mail : yeon@snut.ac.kr 전화 : 02-970-6294 / 010-2722-2959)

최초 투고일 2008. 12. 26

최종 접수일 2009. 2. 9